



Issue Paper

SJM·만도의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배경과 문제점

2012.09.03

(본 보고서는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본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1. 요약

- 7월 27일 SJM과 만도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만행은 금속노조를 와해시키고 경영진에 순종적인 어용노조를 설립할 목적으로 사측에 의해 철저히 기획되었다.
- SJM과 만도의 경영진은 연초부터 의도적으로 단협을 위반하며 노조를 자극했다. 또한 최고의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용위기를 유포하며 현장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다른 한 편 임단협 교섭을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가 파업(또는 태업)을 유도했다. 원청인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이들 경영진과 결품 방지를 위한 대책, 산업적 측면의 노무 전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 이들 사업주들이 노사관계를 의도적으로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가 민주노조를 와해시킨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① 오너의 이해관계. SJM 경영진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대규모 증설을 끝낸 해외공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공장의 생산을 최대한 유연화하고자 했다. SJM 오너에게 외주화를 반대하고 공정한 성과배분을 요구하는 금속노조는 방해물이었다. 만도 경영진은 한라그룹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 M&A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위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성 노조를 제거하고자 했다.

② 산업적 이해관계. 작년 유성기업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듯이 현대차는 자신의 사업장만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의 노사관계에 직간접적 개입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초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사내하청정규직화를 둘러싸고 큰 노사 갈등이 예상했고, 현대차지부를 전체 금속노조 투쟁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여러 수준의 대응을 해왔다. 현대차지부 임단협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7월 말에 이뤄진 SJM과 만도 직장폐쇄는 사측 의도대로 현대차지부에 큰 압력 요인이 되었다.

③ 경영진의 노조관. 경제적 산업적 이해관계와 더불어 사업장에서 노사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경영진의 노조관이다. SJM은 작년부터 경영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세 경영체제를 꾸려왔다. 하지만 2세 경영체제는 기존 노사관계를 부정하며 공격적으로 노조를 몰아붙였고, 급기야 용역깡패를 투입하며 2세 경영체제 구축의 핵심 역할을 경영지원본부 팀장이 구속되었다. 만도는 2010년 재상장 이후 한라그룹 재건이라는 목표 하에 경영진을 대폭 교체하였고, 올해 초에는 노무, 공안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이사들을 선임해 급속노조 와해를 준비해왔다.

- SJM과 만도와 같이 노사관계 외부 요인에 의해 사용자에게 의해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노조 탄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파업유도 → 직장폐쇄 → 어용노조 설립이라는 수 년 째 반복되는 사용자들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들의 노조 와해 공작으로 인해 대규모 해고와 장기간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며 이는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 역시 단순히 기업 차원의 일이 아니라 지역경제, 나아가 국민경제에 위협이 되는 일이다.
- 이러한 사용자의 노조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직장폐쇄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용자의 노조 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복수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의 하청 노사관계 개입을 규제하기 위해 산별교섭에 원청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직장폐쇄 전후 SJM 경영 및 노조 탄압

1) 최근 경영 상황

- SJM홀딩스 그룹은 6개의 국내법인과 9개의 해외법인을 거느리고 있다. 지주 회사인 SJM홀딩스를 정점으로, 자동차 배관 부품을 만드는 SJM과 5개의 해외공장, 재료 수입 및 도소매 업체인 티엔엔, 제조업체이지만 금융수익을 주업으로 하는 한국칼소닉 등의 계열사가 존재한다.
- SJM그룹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SJM과 해외공장들은 전세계 자동차용 벨로우즈의 30~40% 가까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70~80%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 SJM그룹 매출액증가율 및 순이익률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H
매출액증가율	26%	7%	-16%	31%	14%	27%
순이익률	8%	10%	12%	11%	13%	30%

※ 2012년 상반기는 개별 (자료: 기업공시)

- SJM 그룹은 2007년 1,318억원이던 매출이 2011년 1,773억으로 3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은 8%에서 13%로 향상됐다. 현대차의 순이익률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내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 직장폐쇄가 이뤄지기 전인 올해 6월 31일까지 SJM 한국공장은 매출액은 작년 동기대비 27% 늘어났고, 수익률 역시 30%에 육박하는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 중이었다. 이는 SJM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 제품 생산량 역시 자동차부품용 벨로우즈(안산)가 전년대비 10% 늘어나고, 시간당 생산대수도 12%가 향상되었다. 생산량, 노동강도 모두 늘어났다는 것이다.
- 경영 상황, 생산 상황만 보면 SJM은 직장폐쇄가 아니라 오히려 성과 분배를 더 해야 했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 사측이 주장하는 직장폐쇄 이유

- 이러한 상황임에도 사측은 7.27일 직장폐쇄를 전격적으로 감행했고, 같은 날 2백여명의 용역깡패를 투입해 공장 안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최고의 경영상황, 최고의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사실 겉으로만 보서는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

표 2 > 7월 16일 회사측 제시안과 기존 단협

	기존 단협	사측 개정 요구
19조 인사원칙	회사는 사원에 관한 인사권을 가진다. 1. 회사는 상시고용 외에 임시직, 시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를 사용할 때 조합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회사는 신규채용 및 조합원의 해고, 휴직, 보직변경, 전출입, 상벌 등에 관한 인사원칙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가: 3. 산재 및 공상, 휴직으로 인한 결원발생시 동일기간 안에 대체인력 사용
30조 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시, 해고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 2. 징계위원회에 의해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추가: 3. 무단결근 5일 이상 4. 금고이상의 판결 5. 기타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40조 외주 하도급	생산의 일부 물량을 외주나 하도급 처리시에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수정: 생산의 일부 물량을 외주나 하도급 처리시에는 사전에 서면통보하고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항은 2일 이내에 노사협의한다.

(자료: SJM지회 2010년 단체협약 및 2012년 7월 16일 회사 단협개정안 최종제시안)

- 사측은 밝힌 직장폐쇄 이유는 노조가 인사, 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직장폐쇄 10일 전인 7월 16일 사측이 조합에 통보한 회사측 단협 개정안에는 경영권, 인사권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조합원의 고용 등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이 전부였다. 응당 노동조합이라면 조합원의 고용과 관련해 정당하게 주장할만한 내용들이었고, 회사 역시 조합과 교섭해야 하는 내용들이었다.

3) 직장폐쇄 이전 사측의 태도

- 사측은 오히려 올해 초부터 매우 공격적으로 기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노조를 자극해왔다. 마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기존과 다른 행태들을 보여 왔다.

표 3 > 올해 연초부터 진행된 사측의 도발 내용

임단협 교섭 이전 사측의 도발 내용	노조 대응 및 사측의 태도
중국산 제품 역수입 후 납품	단협 위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항의. 사측은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다 실수라고 해명,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역수입 관련 문제 발생
계약직 현장 투입, 사무직 현장 투입	단협 위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항의. 십 수년간 없었던 일로 사측은 당연하다는 듯이 단협위반하며 계속 갈등 조장.
51개 단협 개악안 제출	노조 백기투항하라는 안. 사실상 교섭이 불가능한 안 제출. 개악안 제출하고 임단협 교섭을 고의로 장기화하며 파행으로 이끔.
대대적인 외주화 관련 소문 유포	관리자들을 통해 시흥공장 외주화 소문 유포. 노조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단협 위반하는 외주화 하지 않겠다는 약속 요구.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

(자료: 노동조합 면담 내용 및 민주통합당 진상조사위 자료)

- 위 표는 본격적인 임단협이 이뤄지기 전에 연초부터 사측이 해왔던 일들을 정리한 것이다. 사측은 예년과 달리 올해 연초부터 대놓고 단협을 위반하기 시작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에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무시전략을 써왔다.
- 이러한 행동들은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던 패턴이다. 창조 등의 전문 노무관리 컨설팅업체가 주도하는 금속노조 와해 및 어용노조 설립 패턴은 고용위기설 유포 → 기존 노사관계 무시 → 단협 위반을 통한 노조 자극 → 대체인력 양성 → 임단협 파행 → 파업유도 → 직장폐쇄 → 용역강패 투입 → 어용노조 설립으로 현재 SJM에서 벌어진 사태와 한 치도 다르지 않았다.

4) 노사관계 외부적 요인들: 승계 비용의 전가와 해외공장 증설

- 사측이 이렇게 올해 금속노조를 제압하려고 했던 이유는 노사관계 외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의 SJM 경영 상황이나 임단협 교섭 쟁점 등에서 볼 수 있었듯이 노사관계 내부적 이유로 사측이 핵심 경영진이 구속까지되는 무리수를 두며 직장폐쇄와 용역강패 투입까지 감행할 이유는 없었다.
- SJM 기업 상황에서 최근 가장 큰 변화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분 증여와 경영권 승계, 다른 하나는 해외공장의 급격한 성장이었다.

● 지분과 경영권 승계 비용의 전가

- 김용호 현 회장은 2005년부터 아들 김휘중 현 경영본부장에게 지분을 넘겨주기 위해 꾸준히 지분을 매각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승계 과정이 그러하듯이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었다. 김용호 회장의 지분 전체를 증여한다면 약 1백억원 이상의 증여세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이런 이유로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이들 부자가 택한 것은 김용호 회장이 지

분 일부를 시중에 매각하고 김휘중씨가 약 30억원의 돈을 투자해 그 지분을 매입(전체 주식의 약 4%), 최소 지분을 확보한 이후 인적분할을 통해 구 SJM을 홀딩스와 현 SJM으로 분할하고, 홀딩스 자산을 이용해 현 SJM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그래도 부족한 지분은 김휘중씨가 가지고 있던 비상장기업의 주식(티엔엔)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획득했다. 김휘중씨가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티엔엔은 도소매업체로 2005~6년 경 부터 SJM 과 독점적 거래를 하며 크게 성장한 업체다.

- 이런 지분 승계 과정을 통해 김휘중씨가 자본만 1,589억에 달하는 SJM그룹을 승계하는데 실제 사용한 돈은 4%의 SJM주식을 획득하는데 사용한 30억원 내외가 전부다. 서울로 따지면 2%가 되지 않는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휘중씨는 최소한의 돈으로 그룹을 승계했지만 SJM 자체는 다소 재무구조가 부실해졌다. 자본은 홀딩스로 넘어가고, 부채는 대부분 SJM에 남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SJM의 부채비율은 홀딩스 분할 전 48%에서 분할 후 66%로 급증했다. 단기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 역시 165%에서 127%로 낮아졌다.

표 4 > SJM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

	`05~`10.05	`10.05~`10.08	`11~현재
주요내용	시장매매 지분인계	홀딩스설립. 3자배정 유상증자	김용호 회장 퇴임 준비 김휘중 본부장 경영일선
결과	김휘중 17%→21% 김용호 30%→14%	김휘중 21%→51%(홀딩스) 김용호 14%→12%+8%(홀딩스) SJM 재무구조 악화.	민이사 재무, 노무 재편 비상장회사 규모 ↑ SJM 쥐어짜기.

(자료: 기업공시 자료에서 재구성)

- 문제는 오너가 지불해야 할 승계 비용을 회사가 책임 진 이후 이 비용을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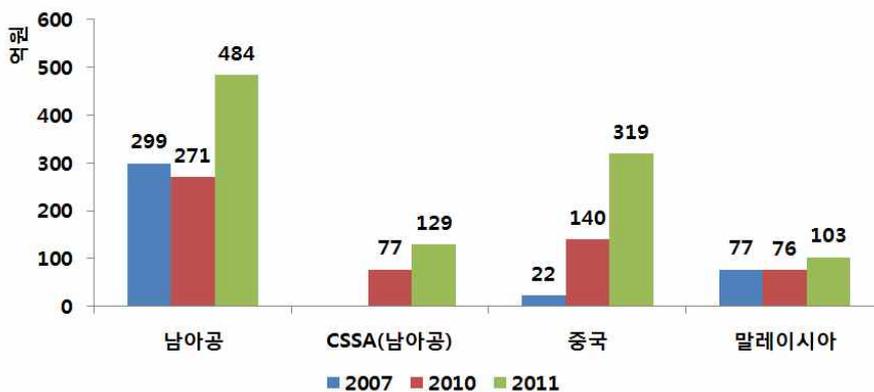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점이다. SJM은 그 자체로 앞에서 보았듯이 이미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경영진은 승계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을 요구했다.

- 그리고 결국 경영진은 성과에 대한 적절한 분배를 요구하는 노동조합, 경영진의 극단적 수익 추구 수단인 외주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의 유연화

- 공격적 노무관리를 통해 금속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던 또 다른 동기는 해외생산 확대다. SJM은 2011년부터 해외생산이 급증했는데, 남아공, 중국에서 매출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 5 > SJM 해외공장 매출 추이



(자료: SJM 사업보고서)

- 남아공은 2010년 348억원에서 2011년 613억원으로 늘었고, 중국은 140억원에서 319억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2012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차 베이징3공

- 장 납품을 주목적으로 한 2공장까지 추가로 가동에 들어가면서 해외생산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해외생산은 한국 공급이 아니라 해외 완성차 공장에 대한 공급이 주목적이다. 남아공 공장은 포드와 지엠, 중국공장은 현대차와 기타 완성차업체들이 납품 기업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되는 일부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경기 변동에 따라 생산능력 대비 가동률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경영진은 한국에서의 생산을 좀 더 신축적으로 늘이고 줄일 수 있는 체계를 원했다.
 - 여기에 더해 SJM의 타업체와 다른 수익 구조도 국내 공장에 대한 비용 삭감 필요를 더했다. SJM의 납품가는 다른 업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인데, 저임금 생산 지역에서 납품가가 높고, 한국에서 납품가가 낮은 형태다.
 - 작년 납품가를 보면 해외 공급 자동차용 벨로우즈 납품가는 1천3백원인데 반해, 국내에서 생산해 현대차 등에 납품하는 자동차용 벨로우즈는 9백7십원에 불과하다. 중국, 남아공 등 한국에 비해 노동비용이 20~30%에 불과한 해외에서 납품가는 역으로 국내보다 34%나 높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해외 공장의 수익률은 다소 비정상적이라고 느끼질 정도로 높은데, 현대기아차에 대해 납품가가 국내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중국의 경우 2011년 수익률이 28%에 달했다.
 -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SJM이 현대차와 중국에서는 높은 납품가를 받는 대신, 한국에서는 낮은 납품가를 받는 것으로 계약한 것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과 SJM그룹 사이의 평균 납품가는 유지하되, 지역 마다 수익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 문제는 이러한 경영 전략 상의 판단으로 인한 중국과 한국의 수익률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한국의 구조조정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직장폐쇄 전에도 사측은 중국에 비해 떨어지는 한국 법인 수익률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압박하며, 고용불안을 조장했었다.

5) 현대차의 개입

- 작년 유성기업과 같은 직접적인 개입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현대차가 이번 SJM 직장폐쇄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장 분명한 정황은 지회 증언에 따르면 올 초부터 SJM이 중국산 역수입 부품에 대해 현대차 구매본부가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일부는 테스트 용으로 세정, 세종 등에 납품까지 한 것이다.
-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SJM의 생산 구조는 한국의 납품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역수입을 할 이유가 없다. 품질 문제 역시 가동 시간이 길지 않은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인한 생산 중단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 볼 수 있다.

3. 만도 직장폐쇄 전후 경영상황과 노조 탄압

1) 최근 경영 상황

표 5 > 만도 매출액증가율 및 순이익률 추이(연결)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H
매출액증가율	19%	9%	12%	33%	26%	18%
순이익률	5%	2%	4%	5%	5%	4%

(자료: 기업공시)

- 만도는 2011년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부품사로 연 매출 4조5천억원 규모에 2천3백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한국, 중국, 미국 등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2008년 정몽원 회장이 지분을 인수해 1998년 부도 이후 10년 만에 한라그룹에 재편입되었다.
- 만도는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로 약간의 경영위기를 겪은 것이 사실이나 이후 5%대의 수익률과 연 20% 대의 초고속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 한국에서의 생산량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 중이다. 직장폐쇄 전 올해 상반기 국내 생산량은 제동장치 18%, 조향장치 10%, 현가장치 16%가 증가했다.
- 정몽원 회장은 2012년 5월 '만도의 미래 생존을 위한 신출사표'란 제목의 장문이 편지로 경영 혁신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경영지표로 보면 만도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사측은 2012년 4~5월부터 경영위기, 고용위기를 이야기하며 노조의 부분파업을 비난했지만, 별 근거는 없는 이야기였다.

2) 사측이 주장하는 직장폐쇄 이유

- 만도는 성장세가 뚜렷하던 2012년 7월 말에 직장폐쇄와 용역강패를 투입했

다. 사측은 직장폐쇄 근거로 노조가 만도 문막에 함께 위치한 깃스코리아의 인수를 무리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라 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 교섭 내용을 보면 3월 22일 임금요구안 발송 이후 지부집단교섭이 결렬된 6월 16일까지 노사교섭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안이었다. 당시까지 사측은 깃스 건에 대해서는 안조차 내 본 적이 없었다. 중간에 임금 외에 노사 간에 집중적으로 다룬 안 역시 노사협의 없이 초과물량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외주 처리한 건에 관한 것이었다.
- 만도 노사는 지부집단교섭 결렬 이후 고용위, 임금, 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만도지부에 따르면 7월 5일까지 교섭은 상당수 의견을 접근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7월 12일부터 사측은 모든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깃스 관련 의제 철회와 투쟁배치(태업, 부분파업 등) 중단을 요구했고,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 심지어 만도 사측은 임단협 교섭 기간 중에 지부장을 비롯해 주요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대단한 폭력 사건이 아닌 다음에야 원만한 교섭을 위해 노사 모두 고소고발은 자제하는 이전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다. 만도 경영진은 노사관계를 극단적인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갔다.

3) 직장폐쇄 이전 사측의 태도

- 올해 초 만도는 노무, 공안사건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새로 영입된 사외이사 두 명 중 한명은 노동부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안기부 차장,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을 역임한 사람이었다. 자동차 부품사 기업경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노무, 공안 전문가들이 영입된 것이다.

그림 6 > 올해 초 영입된 사외이사들

주완	1959년 04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법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법대 대학원 석사 - 현재 노동부 자문 변호사 - 현재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현재 한국노총 자문 변호사 -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영수	1942년 05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법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법대 대학원 수료 - 서울지방 검찰청 부장검사 - 국가안전기획부 - 제14대 민자당 국회의원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 제3대 문화체육부 장관 - 현재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자료: 사업보고서)

- 직장폐쇄 이전 사측은 고의적이라고 생각이 들만큼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연초 단협 중 가장 예민한 사항인 외주화 관련 단협 조항을 위반했다. 사측은 BD PAD 조립 초과물량에 대해 노조와 협의 없이 외주화를 추진했다. 이후 7월 초에 외주화 물량을 다시 내부 생산하고, 단협 위반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하기로 했지만, 이는 직장폐쇄 이후 흐지부지 되었다.
- 외주화 건 전후로 사측은 품질문제를 이유로 현대차가 만도에 대해 신규차종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소문을 유포했다. 현대차의 입찰 제한 경고가 진짜 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명분으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 정서를 자극하는 각종 선전을 시작했다.
- 5월 말에는 정몽원 회장이 ‘만도의 미래 생존을 위한 신출사표’란 제목의 장문의 편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 경영위기, 고용위기를 본격적으로 조장하기 시작했다. 편지는 만도가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해있으며, 노조가 파업을 벌여 생산차질이 벌어지면 큰 경영위기가 올 수 있다는 협박이 주요 내용이었다. 임단협을 앞두고 회장이 직접 나서 노조를 자극하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림 8 >정몽원 회장의 가정통신문

셋째, 파업을 봉해야만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생산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제 때에 납품을 못하거나, 사무직 라인투입에 따른 업무 연속성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유무형의 엄청난 손실이 야기됩니다. 특히 최근에 현대가 품질 이슈를 문제 삼아 우리에게 통보해온 것처럼 신규차종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 물량감소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금전적 손실 못지않게 회사 내부적으로, 고객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대국민 이미지 측면에서 비금전적인 신뢰 상실에 따른 손실은 그보다 더욱 파괴적입니다. 대외 이미지 추락과 신용도의 저하, 그리고 내부 구성원 간의 신뢰 상실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옛날처럼 그것이 매년 반복된다면 그 골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제살을 깎아먹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해보려는 의욕마저 꺾고 우리 수준이 고작 그 정도인가 하는 자괴감까지 갖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상호 믿음이 더 커진다면,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협력이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발생협상을 통해서라도 대화와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상호 신뢰와 절정이 바탕이 되어야겠지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만도지부)

- 6월에는 회사가 더욱 공격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만도는 사측이 노조와 대화하려 하나 노조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내보내고, 정몽원 회장이 직접 노조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몽원 회장은 이후 만도지부 김스지회장의 면담 참여를 핑계로 면담을 무산시켰다.
- 임단협 교섭 와중에 갖가지 방법으로 노조를 자극하던 경영진은 7월 중순부터는 아예 노조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며 노사교섭을 파국으로 내몰았다. 임금교섭, 단체협약 교섭을 전사고용위의 안건 중 하나였던 김스지회 조합원 고용보장 건을 핑계로 모두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 앞의 SJM 사례나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과 마찬가지로 만도 역시 연초부터 단협을 위반하며 노조를 자극하고, 고용위기 경영위기설을 유포하며 조합원을 혼드는가 하면, 교섭을 의도적으로 파국으로 내몰아 파업을 유도, 휴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감행했다. 만도 역시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 업체들이 만든 노조 파괴 시나리오와 한 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4) 노사관계 외부적 요인들 : 한라그룹 재건을 위한 어용노조 세우기

- 만도 역시 경영 여건이나 노사관계 내부 갈등을 근거로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이라는 사측의 극단적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다. 올해는 매출 성장이 크게 이뤄지던 시기고, 임단협 과정에서 외주화 때문에 갈등을 겪었지만 이는 사측의 사과로 해결돼 가고 있었다. 임금 관련 쟁점이 남아있었지만 이 역시 임금 교섭 비용을 상회하는 직장폐쇄, 용역투입이라는 극단적 해결책을 사용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 만도의 이번 불법 직장폐쇄와 용역깡패투입은 만도그룹 재건이라는 정몽원 회장의 계획 하에서 이뤄진 금속노조에 대한 기획 파괴에 가까워 보인다. 위니아만도와 한라공조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서 만도 주가를 더 높여야만 했고, 동시에 위니아만도, 한라공조의 금속노조 역시 기선을 제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 2008년 만도를 재인수한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은 2010년 만도 재상장 이후 1998년 해체된 한라그룹을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2012년 초부터는 위니아만도와 한라공조를 인수하겠다고 여러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었다. 동시에 경제신문들은 만도가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강성노조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림 9 > 매일경제 2011년 2월 23일자 기사

만도의 실적은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만도는 매출액 6210억원, 영업이익 280억원(영업이익률 4.5%), 순이익 465억원 등 분기 최대실적을 거뒀다. 고급 부품을 만드는 만큼 부가가치도 높고 영업이익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3분기 대비 약 1%포인트 개선됐다. 다만 만도 노조가 강성인 점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회사를 디스카운트하는 요인이다

그림 10 > 중앙일보 2012년 4월 4일자 기사

위니아만도 관계자는 "민원식 사장이 최근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CVC가 연내 완료를 목표로 회사 매각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며 "최근 한라그룹에서 인수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전했다.

- 시중에 떠돌던 만도의 한라공조 인수 역시 직장폐쇄 직후, 한라공조 소유주인 비스테온이 상장폐지 절차에 실패하자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림 11 > AutoM 2012년 8월 7일자 기사

만도는 이번 MOU가 '한라공조 되찾기'의 시발점이자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자금력이 풍부한 국민연금이 제휴해 한라공조를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 직장폐쇄 직후부터 바로 시작된 만도의 한라공조 인수전은 처음부터 만도가 금속노조 와해와 한라공조 인수를 하나의 흐름으로 계획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통상 직장폐쇄를 감행할 경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생산 차질과 주가 하락이 이어진다. 만도가 철저한 준비로 최단시간 안에 금속노조를 와해시킬 자신감이 없었다면 7월 24일 한라공조 대주주 비스테온이 상장폐지를 포기한 지 3일 후 직장폐쇄에 돌입하고, 직장폐쇄 일주일 후 한라공조 인수전에 돌입하는 일정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 2조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한라공조 정도의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동원을 위해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 모든 사태가 즉흥적 행보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5) 현대차 개입

- 만도의 현대차에 대한 납품 비중은 40%가 넘는다. 특히 국내 공장의 현대차 납품 비중은 절대적이다. 다른 부품사와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결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직장폐쇄를 현대차와 사전 협의 없이 감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 현대차가 만도 노사관계에 대해 개입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만도의 조향, 제어, 현가 장치는 현대차의 생산 순서와 동기화되어 생산(직서열 공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의 생산 스케줄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이

런 이유로 현대차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직서열업체들에 대해서는 노사관계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2003년 현대차가 만도에 보낸 서신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림 12 > 2003년 현대차 부품개발부에서 만도로 보낸 서신

<p>당사는 귀사의 노사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될시에는 신차종 참여배제, 양산차종 이원화 등 강력한 제재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래의 기본인 납품에 문제가 있는 업체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 당사의 기본 방침입니다.</p> <p>따라서, 금번 사태와 관련 귀사의 대책 및 금년 노사협상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안전제고 확보에 대한 귀사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

(자료: 매일노동뉴스 2006년)

- 올해 역시 비슷한 개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올해는 예년과 반대로 사측이 공격적으로 직장폐쇄에 나선 것을 볼 때 현대차와 만도 경영진이 현대차 임단협 고립을 목적으로 노조 와해 자체를 함께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임단협을 앞두고 만도 경영진이 사용할 수 있는 고용위기성 소문을 만들어주고(신차 입찰 참여 제한), 직장폐쇄 전후로도 구매부를 중심으로 10여명이 넘는 현대차 관리자들이 만도에 상주했다.(만도 조합원 증언)

4. 결론

- SJM과 만도는 올해 정황으로 볼 때 사측이 금속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노사관계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 직장폐쇄와 어용노조 설립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 SJM과 만도에서 펼쳐진 경영진 변화 → 단협 위반 등을 통한 노조 자극 → 임단협 교섭 파행 →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 투입 → 어용노조 설립 패턴은 이미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사측이 전문 컨설팅을 바탕으로 정해진 수순에 따라 노조 와해에 나선 것으로 추

정 가능하다.

- SJM은 2세 경영 승계 비용의 노동자 전가,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유연 생산 체제 마련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만도는 한라그룹 재건을 위한 강성 노조 와해 기획이 이러한 공격적 노조 파괴 행동의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
- 수직 계열화 되어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사 기업들의 이러한 행동은 현대차의 승인과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번 SJM과 만도에서 역시 여러 지점에서 현대차가 직간접적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 SJM과 만도와 같이 노사관계 외부 요인에 의해 사용자에게 의해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노조 탄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파업유도 → 직장폐쇄 → 어용노조 설립이라는 수 년 쯤 반복되는 사용자들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들의 노조 와해 공작으로 인해 대규모 해고와 장기간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며 입는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 역시 단순히 기업 차원의 일이 아니라 지역경제, 나아가 국민경제에 위협이 되는 일이다.
- 이러한 사용자의 노조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직장폐쇄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용자의 노조 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복수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의 하청 노사관계 개입을 규제하기 위해 산별교섭에 원청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